

연구회 (8월 22일)

Fry, Paul H. 『문학이론』. 정영목 옮김. 과주: 문학동네, 2019.

(발제범위: 10장 & 11장)

10장: 해체주의 I: 자크 데리다

읽을 자료: 자크 데리다, 「인문과학 담론에서 구조, 기호, 변용」 「차연」(CT, 915-926, 932-939)

자크 데리다(1930-2004)

□ 제2전성기:

-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쟁점
-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과 함께 문학과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윤리적 전환’의 것들과 관련됨.

□ 1966

- 「인문과학 담론에서 구조, 기호, 변용」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인간과학’의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

; 레비스트로스 참석

; 레비스트로스를 인용하여 자기 주장을 펼침.

; 구조주의 ☞ 해체주의 혁명(1970년대 전체~ 1980년 초에 걸쳐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존재)

; ‘해석학 마피아’ (예일학과); 데리다, 폴드 만, J. 힐러스 밀러, 제프리 하트먼, 해럴드 블룸

☞ So,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로 부르는 것과 관련됨.

□ 해체주의

-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개념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노출
- 데리다는 글의 문체가 특정 장르에 맞게 형성될 수 있다는 인정을 거부함.

□ 데리다 vs. 드 만

- 데리다

; 문학이론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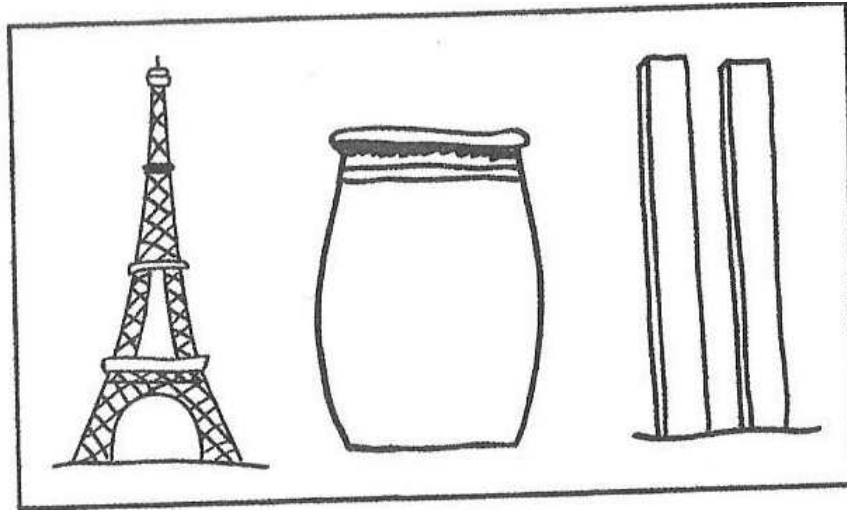
; ‘문자언어_{écriture}’에 대한 태도 → 장르 구분이 신뢰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

a. 장르는 초월적 기의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b. 그러므로, 문학, 법률텍스트, 이론텍스트, 철학텍스트, 과학텍스트 같은 것은 없다.

c. 그것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는 없다. 오직 ‘텍스트’가 있을 뿐이다.

d. 텍스트들의 장은 차이_{difference}로 가득한 뉘가에 관해 생각하는 것.



[표 1: 『문학이론』 10장 해체주의 1: 자크 데리다 p.232)]

□ 수직축 = 가상

- 에펠탑 : 멋진 조합의 축

: 꼭대기 전망대; 발밑에 파리 전체(랜드마크, 주요한 기호들이 질서에 따라)가 조직

{기 드} 모파상은 종종 탑 안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곳이 내가 탑을 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다.”²

[표 2: 10장 해체주의 1: 자크 데리다 p.233 (롤랑 바르트의 에세이 「에펠탑」 중)]

; 에펠탑이라는 “땅에 두 발을 모두 단단히 디디면” 그것이 진짜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라는 관념으로부터 해방된다. (소쉬르의 이론 인용).

; 19세기에 건설됨. 파리의 스카이라인의 원인이 아님.

↳ 랑그가 파롤과의 관계 속에서 뒤늦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나타나는 무언가이다— 사물들을 자의적으로 조직하는 **가상성**이다.

- 단지 (윌리스 스티븐스의 시 「단지의 일화 Anecdote of the Jar」

“조라한 광야가 / 언덕을 둘러쌌다” ↳ 단지는 문학적 텍스트의 ‘지배적인 것’처럼 ‘모든 곳을 지배’한다. 이것은 ‘중심’(데리다의 말)이지만, 실제로 구조의 일부는 아니며, 구조의 바깥에 있는, 그 창조로부터 물러난 창조자이다.

“그것은 새나 덩불을 아낌없이 내놓지 않았다 / 테네시의 다른 것들과는 달리.”

; 단지는 자의적으로 자연적인 세계의 자유로운 변용 한가운데 자리함.

이 자유로운 변용은 ‘남겨진’ 것을 강조하며, 암시하는 것의 한 부분을 이루는 즐거운 과잉으로 가득하다(by 데리다).

↳ 기호의 잉여성, 기호의 **대리보충성**

↳ 단지: 구조 외부에 있는 데리다적인 중심이다. ‘중심 아닌 중심’이다.

- 트위타워

;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기능 → 레스토랑 ‘세계를 보는 창’

but 2001년 이후; 불안감, 하나의 공간적 순간을 추론 + 경험의 환원 불가능하게 시간적인 성격이 파생된다.

↳ 조직화하는 관념의 가상성을 깨닫는 것은, 그 자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없으면 조직된 사고를 위한 기초가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

따라서, 그것을 ‘지우개 밑에_{sous rapture} 두면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데리다 자신이 ‘기호’라는 지배적인 개념 없이는 거의 쓸 수가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늘 의문시 되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두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창조적 기원의 지위로 격상시키기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오이디푸스 신화분석; 데리다가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에서부터 이익을 얻는 동시에 비판

“인식론적 담론(어떤 원칙 또는 초월적 기의 또는 포괄적 용어에 기초한 종류의 담론—다른 말로 하면, 어떤 주어진 순간에 모든 지식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것과 대비되는 신화에 관한 구조적 담론—신화적 담론—은 그 자체로 신화 형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의 형식을 떨 수밖에 없다.”

[표 3: 해체주의 1: 자크 데리다 p.236 (레비스트로스의 오이디푸스 신화 분석)]

이것은 (레비스트로스의 가장 유명한 책으로 꼽히는 『날것과 익힌 것』에서 가져온 다음 구절에서 레비스트로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다. 이제 나는 그저 그 구절의 맨 끝부분을 인용하고 싶을 뿐이다. "신화적 사고의 자연발생적 운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의 기획, 그 자체로는 너무 간략하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한 기획은, 아직 그 요구를 따르지도 못했고 그 리듬을 존중하지도 못했다. 신화에 관한 이 책 자체가 그러하며 또 신화도 그 나름으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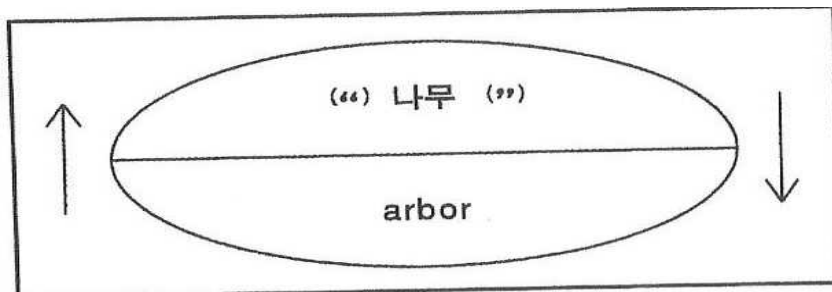
[표 4: 표 3에 대한 데리다의 말. p. 236]

; 레비스트로스의 『날것과 익힌 것』; 사물을 생각하는 신화의 방식에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이 행과 열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신화 형식을 신화적이지 않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 ‘오이디푸스 신화의 프로이트 판본’

; 데리다의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비판: 레비스트로스가 자신의 작업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시점, 즉 ‘중심’(데리다의 말을 빌어)이 있다는 말이다.

데리다가 소쉬르에 관해 말하는 구절

‘기호’라는 의미는 늘 무엇의 기호, 기의를 가리키는 기표, 그 기의와는 다른 기표라는 의미로 파악되고 결정되어왔다. 만일 기표와 기의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지운다면,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버려져야 할 것은 기표라는 말 자체다.



[표 5: 해체주의 1: 자크 데리다 p.238-39 (위 인용글: 기의와 기표 짝짓기에 대한 데리다의 말)]

; 따옴표를 떼어낸다면 개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없는 단어 하나뿐이다. → 야콥슨이 ‘메타언어적’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가 된다.

☞ ‘나무’가 ‘arbor’를 가리키는 또하나의 단어, 즉 기의와 기표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기표와 기표 사이의 관계이다.

테리다: ‘기표’라는 단어를 버리는 편이 낫다, ‘기의’라는 단어에 관해서도 가능.

기표 ‘나무’는 ‘느릅나무’의 이전 기표... 다음기표 그 다음기표.....

; 해체주의의 언어로 언급하면 ‘사슬’, 의미화 사슬을 주는 것- 자기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운동. ☞ **기표들의 사슬**

구조주의; 어제는 자료의 어떤 공시적 단면이 있었고, 오늘은 자료의 약간 다른 공시적 단면이 있다. 일련의 단면들을 보면서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아널드 토인비의 말처럼, ... **어떤 것 뒤에 다른 것이 잇따라 나오는 것.**

예) 밥 딜런 <발라드 오브 어 싯 맨 Ballad of A Thin Man>의 가사: 당신은 전혀 몰랐지만 사실은 늘 있었던 것이 복제된 거랍니다.

☞ 테리다가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구조주의가 어떤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

「구조, 기호, 변용」:

- ‘구조성’에 대한 비판,
- ‘중심’을 가진 모든 것에 질문을 제기,
- 중심이 동시에 구조 내의 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것
-
- 구조에는 경계가 있다.
- 현상학적 전통: 구조의 ‘의도성’,
- 칸트: ‘합목적성’

중심은 ‘중심인 동시에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구조 밖에 있으며, 쿠키 틀처럼 밖에서부터 자신을 찍는다.

- 중세, 근대 초기: 신 중심 (인간: 신의 창조의 산물)
- 계몽주의: 인간중심주의 (볼테르, 블레이크, 마르크스, 니체); 인간이 초월적 기의 (but 인간 등등; 인간은 오직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만 중심으로 존재)
- 구조주의: 언어적, 기호의 체계로서 이해되는 언어의 출현

□ 해체주의 비판자들의 말

; 언어가 신이나 인간이라도 되는 양 언어에 권한을 부여하고 행위성, 심지어 의식까지 부여한다

□ 해체주의 비판자들에 대한 데리다의 방어

; 구조주의적 언어라는 '사건'을 사실상 새롭고 비교적 명석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여러 형이상학이 연속해서 기원을 설명해왔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그 안에 한정되지 않고 물러난다,”(밀턴). 신은 거기에 없고, 숨은 신이 되며, 세계에 부재하면서도 세계의 구조가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는 세상이 무엇이다 하는 의미를 만들어낸 다음 관찰자로서 물러난다.

But

언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언어는 다르다.

언어는 자신을 준거를 외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말(글)과 다르지 않으며, 말(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오직 거기서만 나타난다.

기호와 기표의 차이가 지우개 밑에 들어가야 하듯이 랑그와 파롤의 구분도 그렇다.

데리다의 주장

- 글은 목소리와 거의 다르지 않다, 목소리 또한 시간 속에서 조합적으로 표현된다.
목소리는 귀에 새겨진 소리다. ☞ 은유

- 말과 글은 서로 이원적 상관물이지만, 글이 일차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 대리보충

대리보충성은 의미화라는 사슬 속의 자급성과 자기 범람을 동시에 이해하는 방식이다.

목소리와 글의 차이는

- 글은 목소리가 줄 수 없는 차이의 표시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

difference vs. difference

'a' vs. 'e'

차이 vs. 차연(지연)

11장 해체주의 II: 폴 드 만

읽을 자료: 폴 드 만, 「기호학과 수사학」(CT, 882-893)

추가 발췌문

□ 언어의 점진적 출현은 없다. 파열이 있을 뿐이다.

□ 사물만 있다가 갑자기 언어가 생겨났다는 것: 문화가 자연 뒤에 올 수 밖에 없다는 뜻.

□ 「날것과 익힌 것」

; ‘날 것’이라는 개념은 ‘익힌 것’과 대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즉, 문화 때문에 자연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

; 이원적 쌍에서, 그 둘이 서로가 없으면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예) ‘이성애’와 ‘동성애’

테리다

글과 말은 상호의존적 현상들이다.

difference와 difference 의 차이; 목소리로 표현할 수 없다.

→ 글에서만 존재하는 차이 (difference), 글에서만 우리는 문득 차이와 자연이라는 difference의 두 가지 성격을 파악한다.

예) est/et → 대리 보충성

□ 테리다와 드 만

; 언어의 출현과 그 모든 앞선 출현의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언어가 그 자체의 밖에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언어는 늘 그 자체의 체계적 성격 안에 붙들려 있으며,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구조 안만이 아니라 밖에도 없는 중심이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비평가-철학자를 이렇게 찬양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실은 이런 진리의 일차적 원천으로서의 시인을 찬양하는 것임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by 드 만 891-92)
p. 263

; 이원적 관계의 상호결정에 동의

□ 드 만이 상호결정적 진리-오류라는 두 항을 다루는 방식

; 테리다에게서 벗어나는 지점에 이른다.

☞ 드 만은 ‘문학성’이 있다고 생각

; 문학의 ‘찌꺼기’, 그 ‘문학성’ 또는 ‘메시지 지향’은,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담론의 다른 형태들이 스스로 사물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불가피한 오류의 폭로이다.

□ 드 만은;

- 기호와 의미가 절대 일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우리가 문학적이라고 부르는 언어에서는 언제나 당연시되는 것이다.

- 문학은, 일상의 언어와는 달리, 이 지식의 건너편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매개되지 않는 표현의 오류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형태의 지식이다.

- 질실은 문학을 픽션이라고 언급할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문학의 진정한 성격에 관한 사전지식에서 나타난다.

- 형식과 내용의 구분은 없으며, 아무리 원한다 해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움직일 수는 없다

- 어떤 텍스트에서건 수사와 문법은 불가피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수사의문문

예) 시트콤 <가족의 모든 것>(위에서 묶는 불링화와 아래서 묶는 불링화 사이의 차이가 뭐야?

아치 벙커의 질문에

이디스는 '차이가 뭐야? 궁금해서 알고 싶어'로 이해

↳ 드 만;

의도의 호소하지 않으면 질문은 수사적인 동시에 문법적이며, 따라서 한 질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두 질문은 갈등하는 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 은유와 서술은 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아치 벙커가 자크 데리다가 되어 differacne가 뭐야?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의문문이 수사적인 것인지 문법적인 것인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

- 은유difference와 환유differance사이의 difference를 목소리로는 드러낼 수 없고, 따라서 아치가 옳은지 이디스가 옳은지 알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된 것이라 전체적인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

↳ 결국, 어조와 태도의 동일성이 있다.

□ 실내는 은유적이고 실외는 문법적이다.

□ 해체주의는 문학을 의미 없게 만든다. ; 수사적 읽기란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의미가 언제나 과잉 속에, 맹아적으로, 대리보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과잉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